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 정부 추경 확보 국회서 총력전

김관영 도지사,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에 전북 핵심사업 5건 직접 건의... "전북 미래산업 도약 절호의 기회"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5년 정부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강도 높은 총력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전북 지역 핵심사업 5건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및 AI 지원, 그리고 내수 회복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그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AI 지원, 재해대책 등 정부추경 방향과 부합하는 사업 17건을 발굴하였고, 국회 심사 시 예산 반영을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 김 지사는 △지역 AX(인공지능 기반) 활성화 △인공지능 신도시 혁신 허브센터 구축 △김제 용지 정착농민 축사매입 △군산항 유지준설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국비 300억원 지원 건의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정부의 AI 확산 정책에 발맞춰 지역 특화산업의 AI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



21일 국회를 방문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전북 지역 핵심사업 5건에 대한 추경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북·영남 초광역 지역 AX 활성화 사업(300억원)과 전북 인공지능 신도시 혁신 허브센터 구축 사업(300억원)에 대한 추경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군산항 유지 준설을 위한 82억원 증액, 김제 용지 정착농민 잔여 27개 농가 축사매입을 위한 85억원, 그리고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설계 용역비 5억원 반영을 적극 요청

하며, 특히 군산항의 토사 퇴적으로 인한 대형선박 입항 기피 문제와 창업 인프라 조성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농생명,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지역 특화산업이 밀집해 있어 다양한 AI 신도시 실증 모델 발굴 및 전국 확산의 최적 테스트베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

며 "이번 추경을 통해 AI 신도시 분야의 국가 차원 선제적 대응 거점을 전북에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도의 역량을 총결집해 국회 활동과 기재부 설득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 선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5월 15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간 일반 청중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이다.

소외된 사람들의 벗 그들 곁으로 돌아가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향년 88세 교황청 "평생 주님 · 교회 위해 헌신"

'소외된 자들의 벗'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 시간) 선종했다. 향년 88세.

AP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날 오전 7시35분께 선종했다고 발표했다.

케빈 페렐 국무총장은 "오늘 오전 7시35분, 로마 주교 프란치스코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며 "그분은 평생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고 밝혔다.

또 "교황은 특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신실함과 용기, 보편적 사랑으로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셨다"고 말했다.

이어 "주 예수의 참된 제자로서 모범을 보여준 교황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혼을 삼위일체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운 사랑에 바친다"고 덧붙였다.

젊은 시절 만성 폐 질환을 앓고 한쪽 폐 일부를 제거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2월14일 호흡 곤란으로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한 뒤 양쪽 폐를 진단을 받았다. 즉위 후 가장 긴 기간인 38일을 입원한 뒤 지난달 23일 두 달간의 회복 관찰 등을 전제로 퇴원했다.

입원 중 두 차례 위기를 겪었다.

2월28일 호흡 곤란을 겪었을 때 치료 중단까지 고려했었다는 의료진의 후일담이 전해지기도 했다.

교황은 퇴원 후 짧게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지막은 부활절 주일인 20일이었다. 교황은 부활절 미사를 직접 주재하진 않았지만 낮에 성베드로 광장에 운집한 신도들을 축복하기 위해 성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얼굴을 보였고, 이어 광장으로 나가 신도들을 축복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듬었던 교황이다. 동성결혼이나 미혼 출산에 찬성하진 않았지만 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비판했다. 교리에 얽매이기보다는, 원칙을 따르되 소외된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민자와 전쟁 난민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자서전 '희망'에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조부와 아르헨티나로 건너온 이민자인 부친 등 자신이 전쟁과 이민자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교황명도 '가난한 자의 성인'으로 기록된 13세기 성인(聖人)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본따. 프란치스코가 교황명으로 쓰인 것은 가톨릭 역사상 처음이다. /뉴시스

오영주 중기부 장관, 전주 글로벌 상권 창출 현장 방문 | 전주 한옥마을 등 찾아 현장 간담회

전주시가 웨딩단길(웨딩거리)과 객리단길(전주객사길) 등 전주 원도심을 세계 지역화(글로벌) 명품 상권을 육성 중인 가운데, 정부도 전주시의 우수사례에 주목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구 풍남동에 위치한 워커히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참여기업 대표, 지역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글로벌 상권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상권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관련사진 3면)

전주 글로벌 상권 프로젝트는 크립톤을 중심으로 즐거운도시연구소와 로즈파니,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상권을 웨딩거리와 객리

단길 등 전주 원도심 전역으로 확장해 전주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로컬 콘텐츠를 경험하게 만드는 골목상권 활력 프로젝트이다.

시는 중기부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상권 내 소상공인을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앵커스토어로 집중 육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쉼트리카페 이션 방식을 위한 자율적인 상권관리 모델까지 확장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상권 프로젝트 대표기업인 크립톤의 양경준 대표를 비롯해 팀원기업인 무명씨네 협동조합의 이하늘 대표, 주식회사 로즈파니의 김려원 대표 등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지난 1년간 글로벌 상권으로의 변화 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전문가 등과 함께 향후 글로벌 상권 발전전략을 공유하는 등 전주 웨딩거리 등 원도심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오영주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지역 상권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주한옥마을과 웨딩거리 일대 글로벌 상권 창출 현장을 둘러보고, 전주의 대표 원도심 상권인 웨딩거리에 있는 굿즈·향수 편집숍인 미스테리 대택과 오래된 시계방을 개조한 복합문화공간인 금성당 등을 차례로 방문해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오래된 공간을 특색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노고를 격려했다.

이에 앞서 전주 글로벌 상권 창출팀은 지난해부터 로컬문화 콘텐츠의 연

결과 융합을 통한 'K-라이프스타일' 글로벌 테마상권 조성을 목표로 상권 운영모델 개발 및 상권 활성화 협업을 추진하고, 예비창업가 발굴과 동태상권 컨설팅, 앵커스토어 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추진해왔다.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을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지역만이 가진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브랜드로 전환시키고, 이들이 모인 골목상권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상권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상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